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㉑ 삼세불 신앙이 백제의 신앙 재구성

태안·서산마애불에는 삼세불 신앙 담겨

태안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은 태안반도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가운데에 보살상을 두고 양쪽에 불상을 안치한 형식은 여느 불상과는 다르다. 이런 양식을 두고 구구한 학설들이 전한다. 특히 양쪽에 배치된 불상은 미술사학자들에게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단순히 불상 형태만으로 불상의 이름을 찾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명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태안마애삼존불상의 시기와 신앙적인 특색으로 볼 때, 다보 이불병립상과 미륵보살이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태안마애삼존불 명호 학자마다 달라

불상 형태 외에 신앙적 배경도 살펴야

단순히 형태만으로 불상을 추정한 것에 비해, 과거의 다보여래와 현재의 석가여래, 미래의 미륵보살로 조성된 삼세불 양식이라는 설득력이 있다. 법화신앙은 중국이나 한국불교에 있어 중요한 초기신앙이다. 〈법화경〉의 '견보탑품(見寶塔品)'에서 등장하는 석가 다보여래의 이야기와 '종지용출품(從地湧出品)'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서 등장하는 미륵보살의 모티브를 하나로 묶어, 법화신앙의 꽃인 영원한 부처 즉, '일승불(一乘佛)'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태안 앞바다 백화산 바위 위에 새겨 놓았다는 이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태안 앞바다는 예로부터 중국과 주요한 해상교통 통로였다. 이런 태안반도 초입에 부처님을 새겼다는 점은 법화신앙이 그만큼 한국에서 중요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져 영원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신앙적 흐름은 백제의 전성기를 신앙을 통해 다시 구현하고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백제시대 법화행자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태안반도를 따라 내륙으로 이동하면 삼국시대 불상 중 최고 작품인 서산마애삼존불을 만난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자락에 위찬 이 불상은 1957년에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서산마애삼존불 역시 부처님들이 〈법화경〉 사상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발견당시에는 석가여래·관음보살·미륵보살의 삼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음보살로 추정되는 보살상을 연등불 전신인 제화갈라보살로 보는 견해도 존재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른다면 앞서 이야기한 태안마애삼존불과는 다르지만 〈법화경〉의 수기사상(授記; 뒤에 부처가 되리라는 약속)에 따라 조성된 불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태안반도를 따라 흘러오는 법화신앙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불신앙의 백제적 변용으로도 보여 진다.

가운데 서있는 불상은 마치 개구쟁이 아이를 보는 듯 보조개 위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한쪽에는 새색시처럼 단아한 보살상이 얌전히 서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중생을 향해 미소 짓는 미륵보살이 구름위에 떠 있는 듯하다.

태안반도의 불상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상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하기에 불상이나 보살상의 이름이 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구성에는 〈법화경〉의 신앙흐름을 따라 조성된 백제인들의 새로운 신앙적 표현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현세에 나투신 석가여래와 석가여래에게 자리를 내어준 다보여래, 미래에 중생을 구제해 줄 미륵보살, 과거에 부처님의 앞길에 놓인 진흙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부처님을 공양한 연등불, 중생의 구제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건 간에 〈법화경〉 안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삼존불이건 삼세불이건 간에 태안반도를 따라 흘러온 법화신앙은 새로운 백제의 신앙을 재구성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㊻

기억될 수 있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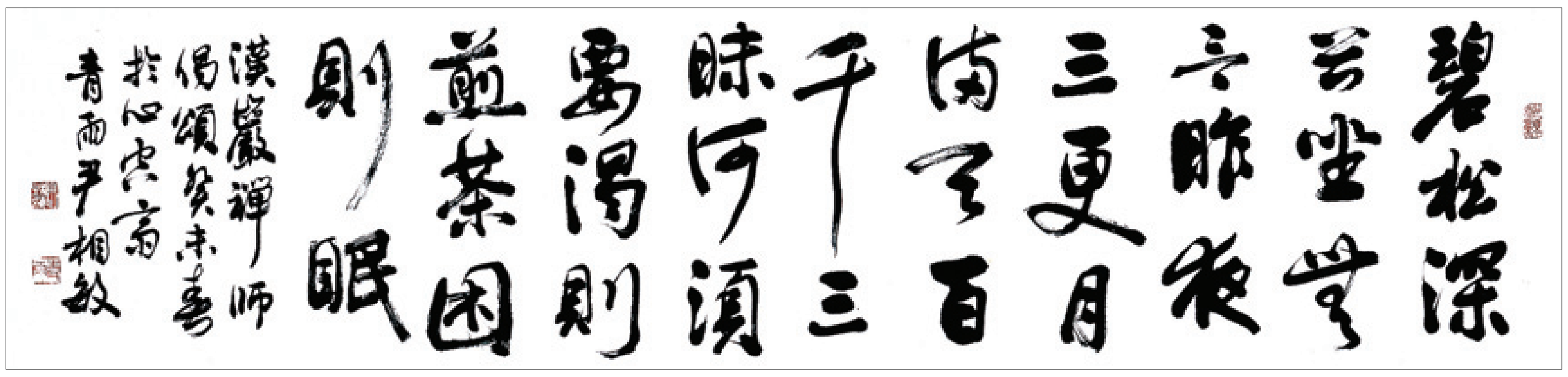
하루가 저문다. 기억될 수 있는 하루였을까. 기억될만한 하루는 누구에게나 그리 많지 않다. 새로운 하루가 오늘의 하루를 잊게 하고 또 다른 하루가 그 하루를 잊게 한다. 짙어진 어둠 속에서 법고 소리가 들려오고, 대중은 각자의 '하루'를 들고 법당에 든다.

힘겹게 하루를 살았지만 보고 들은 만큼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고, 가슴을 채우고 있던 생각들은 세상을 채우지 못했다. 부처님을 부르는 대중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부처님 전에 부딪히고, 지옥으로 떠났던 종소리가 파도처럼 돌아온다. 무릎 밑의 좌복보다도 작은 가슴을 오늘도 채우지 못한 채 하루를 또 잊어야 한다. 이천 오백 년 전의 잊히지 않는 그 하루가 오늘도 대중의 무릎 위에 놓이고, 기억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대중은 다시 부처님을 부른다.

-어느 해 겨울 장성 백양사에서.

사진부 차장

윤상민의 서화산책①



漢巖禪師偈頌(한암선사게송)

碧松深谷坐無言 昨夜三更月滿天 百千三昧何須要 渴則煎茶困則眠(벽송심곡좌무언 작야삼경월만천 백천삼매하수요 갈즉전다곤즉면) 푸른 솔밭 깊은 골에 말없이 앉았으니 어젯밤 삼경 달빛 하늘에 가득하네 백천삼매를 어디에 쓰랴 목 마르면 차 마시고 곤하면 눈 붙이네.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불기 2555년 단기 4344년 서기 2011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수 있는 래정비법!

(포켓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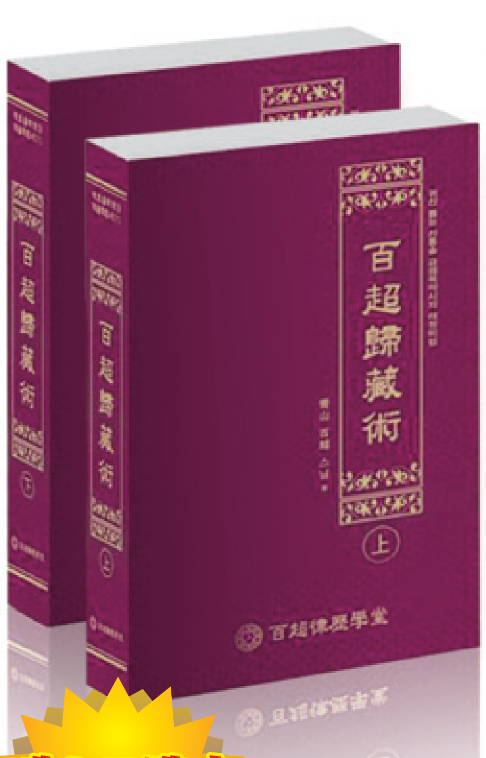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4×6배판/ 칼라제본/ 456쪽/ 정가 20,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6쪽/ 정가 10,000원

著者 白超 백초스님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